

## 극 동 음 향 (주)

### 국내 대표적인 마이크로폰 생산업체



- 대표 : 김학남
- 본사 : 서울시 중구 신당2동 821번지
- TEL : 02-2234-2233
- FAX : 02-2233-2323
- 인천공장 및 사무실 :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565-2번지
- TEL : 032-578-2112
- FAX : 032-578-2113
- 가전유통팀 :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475-4호 인산B/D 3층
- TEL : 02-586-1680
- FAX : 02-586-1600
- http://www.kdsound.co.kr
- 주요생산품목 : 마이크로폰, 가라오케 시스템, Amplifier

극동음향(주)은 1971년 극동전자를 모태로 해서 1977년 사명을 개명, 재설립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30여년의 역사를 가진 회사이다. 서울 신당동에 위치하는 본사와 공장과 사무실이 위치한 인천 공장 및 사무실, 가전유통영업을 전담하는 서울 서초동 가전유통으로 3개의 사업장이 나누어져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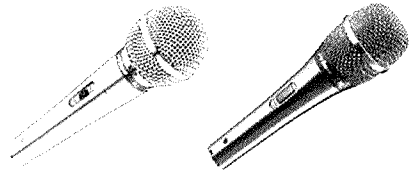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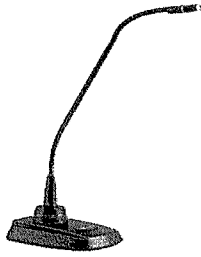
극동음향은 방송, 음향, 회의 장비를 생산 제조 및 수출입하는 회사로 앞으로는 전기·전자·음향 유통회사로 성장 발전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극동음향주식회사는 Pro Audio, Home Audio, Car Audio를 비롯하여 인천 공장에서 생산하는 마이크로폰과 가라오케 그리고 마이크로폰 관련 악세사리를 취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극동음향에서 생산하는 마이크로폰은 대부분 OEM의 형식이었고, 극동음향의 브랜드로 유통이 되는 제품들도 부가가치가 낮은 상태였다. 이에 올해 극동음향의 목표는 회사의 브랜드 확립, 고급형·고부가가치의 마이크로폰을 생산, 유통시키는 것이다.

극동음향에서 올해 전력을 다해 개발, 생산하는 가라오케 제품은 예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왔던 사업이지만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많은 비중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이며, 현재는 CVK-M200이라는 모델이 작년부터 개발에 들어가서 생산단계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휴대용 가라오케로서 국내 내수용 판매는 물론 해외판매까지 유통망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제품이다. 또한 적외선 무선마이크의 기술개발능력은 전 세계에 적외선 무선마이크를 개발생산하는 국가가 일본, 독일, 대만 그리고 한국의 극동음향이 있을 정도로 기술력은 확보가 되어있는 상황이다.

지난 수년간 반도체칩의 수없는 단종과 CD mechanism의 수없는 교체, 반도체등의 제품의 수요급증에 따른 공급물량 부족 등으로 많은 부분 원자재부담을 안고 제품생산에 임하였으나, 극동음향은 올해 중반기부터 향후 3년내에는 원재료 부족이나 단종에 염려할 필요없이 모든 디자인과 파트리스트를 작성하여 향후 신제품의 경우에 전혀 원자재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대체하였고, 이를 위해 제품 디자인과 금형비등에 많은 투자가 되었다. 이런 진행을 위해 불요불급한 자재를 제외하고는 핵심부품을 반품형태로 공급받음으로써 양질의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Pro Audio 부문에서 Teac, TASCAM, audio-technca, D.O.D, FBT, PHILIPS, PEAVEY 등의 수입브랜드를 취급하며 여기서는 스튜디오, 빌딩, 방송국 등으로 제품 유통, PA공사를 하고 있다. 2002년 월드컵과 늘어나는 국제회의, 호텔등의 신규음향 시설설비공사의 수주와 기자재의 변화에 따른 방송국과 음향 스튜디오의 미디어매체의 변화에 의한 특수수요효과로 파트리스트를 작성하여 현재 진행중인 신제품의 경우에는 향후 약 5년 이상은 판매 신장이 계속 될것으로 예상된다.

Home Audio 부문에서 취급하고 있는 브랜드는 Teac, Nakamichi로 백화점, 할인매장, 전자상가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며, Car Audio 부문에서는 MTX, Nakamichi이 카오디오 shop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취급하고 있는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제품이 없어서 유통을 못 시키고 있을만큼 영업적인 면, 제품 개발 및 기술면에서 뛰어난데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 자본금 20억원이며, 2000년 당해의 매출규모는 170억원이다.

이정도의 매출은 우선 현 시점에 맞는 제품의 개발과 바로 현재에만 국한된 개발이 아닌 미래의 시장이 어떨지를 예상, 계획하는 예견력과 거기에 맞게 제품의 개발·확보, 유통망 확보에 따른것이라 확신한다.

또 대표이사인 김학남 사장이 1971년 극동전자를 창사하기 전에 운영하던 현재의 동인천 부근에 위치한 극동전과사에서 부터 시작된 성실과 신용을 바탕으로 한 기술과 영업력은 극동음향을 이만큼의 중견 기업으로 성장할수 있게 한 근본적인 바탕이 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극동음향의 또 눈에 띄는 만한점은 북한에서 임가공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북한에 공장을 세운 대한민국의 기업이 그리 많지 않은

현재로서 대기업도 아닌 중소기업이 북한에 그런 공장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도 극동음향이 어떤 회사인지 예상 가능하다.

또 극동음향의 자랑거리는 투명한 경영이라는 것이다. 경영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2000년도부터 추진했던 사내 정보화, 사내 인프라 구축이 2001년 현재에는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고, 2000년부터 시작한 ERP 시스템 구축이 이제 어느정도 완성이 되어 올해부터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1998년 7월 인천 부평구 일류화 기업에 선정되었고, 1999년 4월에는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또 2000년 12월 9일에는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하는 ISO9001인증을 받았다.

극동음향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 발전하여 이제는 특수분야의 사람뿐만이 아닌 일반 대중에게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 성장할 것이다.

